Weekly 2022년 제16호 | 2022.6.16.(목)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자동차·탄소, EU】 EU,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 종료 결정

【원유, 러시아·인도】 러시아,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으로 등극

【코로나·봉쇄, 중국】 베이징·상하이, 코로나 확산으로 재봉쇄 가능성 우려

【반도체, 중국】 중국, 미국의 견제에도 2년 연속 반도체 장비 수입 세계 1위 차지

【자동차, 중국】 BYD, '22.4월 글로벌 신에너지차 판매량 1위 차지

【요소·비료, 중국】 중국, 요소 비축 제도를 통해 농업 생산에 요소 50만 톤 공급

【수출입, 중국】 중국, 1~5월 수출입 통계 발표

【물류, 한국】 한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 6.14일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

【해외투자, 미국】 美 의회, 적대국에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경제·공급망, 일본】 일본,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국무회의 의결

【비료, 러시아】 '22.1월~5월 러시아 비료 수출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GVC 뉴스 더하기

① EU,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대응 위해 FTA 적극 추진

② 전기차 전환, 중국 시장점유 강화 및 유럽 생산력 악화 우려

GVC 기초상식

런던금속거래소(LME) 알아보기 1

GVC 돋보기

① 주요국의 전기차 산업 지원정책과 공급망 이슈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전기차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② 러시아 기업들은 어떻게 제재에 대응하고 있을까

GVC 전문가

강바다·김경유(산업연구원) - '중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시사점'

GVC 소식통

① 러-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지원 사업 안내

③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미국 분유대란으로 본 공급망 정책 리스크 (그래픽)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자동차·탄소, EU】 EU,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 종료 결정

- EU의 의결기관인 유럽의회는 6.8일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안을 찬성 339표, 반대 249표, 기권 24표로 통과시킴. 사실상 2035년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되었음
  - 이러한 결정은 EU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기후변화 입법 패키지(Fit for 55)'의 일환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치임
- 한편, Fit for 55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의회 개정안은 채택에 실패함(본회의 표결 결과 : 반대 340표 / 찬성 265표)
  - EU ETS의 확대 적용과 최근의 에너지 비용 상승이 맞물린다면 산업계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후 기금의 승인도 합의되지 못하는 등 EU 집행위가 최초 제시한 Fit for 55 패키지 관련 법안의 상당수가 보류된 것으로 보임. 금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 EU 내 기후대응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CBAM 등 도입 시기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평가

출처 :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등

【원유, 러시아·인도】 러시아,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으로 등극

- 로이터는 러시아가 지난 5월 인도의 제2위 석유 공급국이 되었다고 보도함(1위 이라크, 3위 사우디아라비아). 5월 인도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약 819,000배럴을 공급 받았으며, 이는 4월 277,000배럴보다 급증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임
- 서방의 제재로 서방의 석유 수입업체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기피하게 되었고, 러시아산 원유의 현물 가격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됨.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과거 높은 운임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사지 않았던 인도 정유사에게 저가 원유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5월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은 16.5%를 차지했으며, 중동지역은 59.6%로 떨어짐
  - 5월 인도의 원유 수입은 총 498만 배럴로 '20.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출처 : 로이터('22.6.13)

【코로나·봉쇄, 중국】 베이징·상하이, 코로나 확산으로 재봉쇄 가능성 우려

- 베이징과 상하이의 코로나19가 그간 봉쇄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고 계속 불씨가 남아 확산되고 있음. 6.13일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규 확진자는 각각 74명과 17명을 기록함
  - 베이징은 6.9일 차오양구 산리툰에 소재한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6.13일까지 누계 287명 감염
  - 상하이는 6.9일 쉬후이구의 유명 미용실에서 3명의 미용사가 코로나19 감염된 것이 확인
- 베이징시는 해당 클럽이 있는 차오양구 산리툰 지역에서 영업하는 74개 클럽, 식당 700여곳, 미용실 230여곳을 폐쇄했으며, 차오양구와 경제개발구는 사흘간 매일 1회씩 전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6.13일 재개하려던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등교도 다시 연기되었고, 주요 관광지의 운영도 중단됨
- 상하이시는 민항구와 진산구 거주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6.18일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지역에서 봉쇄식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 연합뉴스, 주상하이총영사관 등 종합

● **【반도체, 중국】 중국, 미국의 견제에도 2년 연속 반도체 장비 수입 세계 1위 차지**

- 미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 노력과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2년간('20~'21년) 반도체 주문 규모에서 1위를 지속하고 있음('21년 한국이 2위). 이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간 경제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 블룸버그는 6.13일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재료협회(SEMI)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이 해외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장비 구매액이 '21년에 58%나 급증했다고 보도함
- 또한 블룸버그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법안을, 미국 하원은 올해 2월 미국 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했지만, 법안 내용이 달라 현재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조문화를 위한 병합심사)이 진행 중임

출처 : 블룸버그('22.6.13)

● **【자동차, 중국】 BYD, '22.4월 글로벌 신에너지차 판매량 1위 차지**

- '22.4월 BYD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0.6만 대로 월 기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약 20%에 해당함. 동 기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공장이 위치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의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4월 판매량이 전월대비 77.8% 감소함
  - '22.4월 글로벌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54.2만 대 기록
  - 최근 BYD의 시가총액은 1,288억 달러로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3위에 등극(1위 테슬라, 2위 도요타)
- 업계는 BYD는 ① 부품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공급망이 수직 계열화로 이루어져 있고, ② 중국 내에서도 선전(본사 소재)뿐만 아니라 시안·창사·지난·허페이·정저우 등 9개 공장에서 분산하여 생산하며, ③ 가격대, 타깃 연령층 등 제품 라인업도 광범위해서, 공급망 대란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6.8), 아주경제 등

● **【요소·비료, 중국】 중국, 요소 비축 제도를 통해 농업 생산에 요소 50만 톤 공급**

-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말 종료된 '2021~2022년 요소 비축 시범사업'을 통해 허난·허베이·안후이·산둥 등지의 농경지에 50만 톤의 요소 비료를 공급함
  - 중국 정부는 '04년부터 화학비료 비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저우거래소를 통해 '국가 화학비료 비축 관리방법'에 근거한 요소 비축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함
  - 중국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요소 비축 규모를 확대(10만 톤→50만 톤)했으며 비축업체에 대한 보조금 한도(50만 위안→100만 위안)를 인상하는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음
- 한편, 금년 1~4월 중국의 요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한 45만 톤(해관총서)
  -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요소 수출에 대한 법정 상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11월부터 수출 감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2.06.13)

● **【수출입, 중국】 중국, 1~5월 수출입 통계 발표**

- 중국 해관총서는 6.9일 '22.1~5월 중국 상품 교역액이 16.04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8.3%), 수출액은 8.94조 위안(+11.4%), 수입액은 7.1조 위안(+4.7%), 무역 흑자는 1.84조 위안(+47.6%)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22.5월의 교역액은 3.45조 위안(+9.6%), 수출액은 1.98조 위안(+15.3%), 수입액은 1.47조 위안(+2.8%), 무역흑자는 5,029억 위안(+79.1%)을 기록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 동향('22.6.9), 중국 해관총서

● **【물류, 한국】 한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 6.14일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

-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6.13일 한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이로 인한 물류 병목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6.1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로 6.7~12일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1.6조원 가량(추정)의 생산,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속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함
- 6.14일 밤(22:40) 국토교통부 협상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5차에 걸친 교섭 끝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써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종료됨. 양측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함
- 국토교통부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지난 3년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화물차주의 합리적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출처 :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중앙일보, 매일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 **【해외투자, 미국】 美 의회, 적대국에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13일 중국 등 적대 국가에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법성을 검토한 뒤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심사가 적용되는 특정 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이 지정될 가능성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분야에 대한 '우려 국가(적대국)'로의 그린필드 투자,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 법인 설립,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를 통한 출자 등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투자 방식들도 모두 미국 정부의 검토 대상이 될 전망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경제 등

● **【경제·공급망, 일본】 일본,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국무회의 의결**

- 일본 정부는 6.7일 임시 국무회의(각의)에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안 의결
  - '골태(骨太)방침'은 일본 정부의 해당 연도 경제·재정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로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여 매년 6월경 각의 결정을 거친 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에 반영됨
- 골태방침에는 내각부(총리실) 내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설치하는 등 공급망과 관련된 경제안보 내용 포함
  - '22.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골태방침에서는 동법 시행을 목표로 '속히 기본 방침을 수립하겠다'는 것과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및 민관 기술협력을 동법 시행에 앞서 추진할 것임을 명기

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경제과, KOTRA 일본지역본부

● **【비료, 러시아】 '22.1월~5월 러시아 비료 수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

- '22.1월~5월 기간 러시아의 비료 수출량은 1,25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고 언론(Interfax) 보도됨
  - '21년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은 5,860만 톤이며 이 중 60%가 수출됨
- 4월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5월부터 점차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러 철도청이 밝힘
  - '22.4월 한달간 전년 동월대비 40.8% 감소

출처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GVC 뉴스 더하기 ① : EU,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대응 위해 FTA 적극 추진

※ EU는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를 계기로, 과거 '최소비용·최고효율' 전략에서 벗어나 '충분한 재고 확보'로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공급망 탄력성 확보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EU의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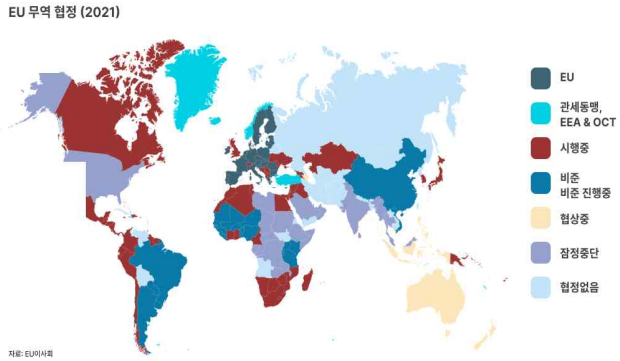
● 적시생산(Just In Time)에서 비상대응(Just In Case) 방식으로 전환

- EU는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 계기로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Just-in-Time ⇒ 재고율을 높여 만약을 대비하는 Just-in-Case로 전환
- EU집행위, 공급망 탄력성을 위해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특정국 무역의존도 완화** 정책 추진
  - EU는 공급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의 역내 생산 및 단일 무역상대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칠레,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정책을 강화

● EU, 자유무역협정(FTA) 후보국과 협상 진전 및 타결 가능성

-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통상관계 다변화가 EU의 중점 전략**으로 부상, **FTA 통한 양자협력 강화** 도모
  - EU 부집행위원장 돔브로스키는 중국과 복잡한 정치관계에도 불구, 양자간 무역 관계 정립은 필수적임을 재차 확인
  - 칠레, 멕시코, 메르코수르와의 양자협력 필요성도 언급,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의 협상도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
- 反FTA 성향인 프랑스의 의장국 임기 만료 후, 親FTA 체코가 하반기 이사회 의장 맡아 **FTA 진전 가능성**↑
  - 브렉시트 이후 FTA를 주도한 북유럽 국가들, 집행위에 신속한 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표출

〈 EU의 무역 협정 현황 〉



(자료: EU 이사회)

〈 EU의 FTA 협상진행 대상국 〉

대상국	협정 주요 내용	한국-대상국 간 FTA 체결 여부
칠레	EU의 배터리 제조를 위한 리튬 수급이 주목적	'04.4월 발효
중국	강제노동 방지 및 시장 접근에 대한 보상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공유 하는 내용 등을 포함	'15.12월 발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행중)
멕시코	EU는 이전 협정으로 무역흑자를 달성했으며, 신규 협정 시 거의 모든 재화에 면세가 적용될 예정	'22.3월 협상 재개
메르코수르*	7억8천만 인구의 거대시장으로 연간 관세 40억 절감 효과 기대	'18.5월 협상 개시 ('21.8월까지 7차례 협상)
인도	급성장 중인 경제체로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 가능	'10.1월 발효
호주, 뉴질랜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무역 파트너로 성장 가능	호주 '14.12월 발효 뉴질랜드 '15.12월 발효

* MERCOSUR 포함 국가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시사점

- 최근 공급망 이슈로 인해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음
  - 공급망 등 新통상이슈 중심의 경제통상 협력체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5월 공식 출범
- 우리나라도 협상 중단 중인 FTA의 재개는 물론 **자원 확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상대국·권역과의 신규 FTA** 및 **既발효국 간의 개선(추가자유화, 업그레이드) 협상**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FTA 강국으로서 '22.6월 현재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 EU가 공급망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 중인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는 既발효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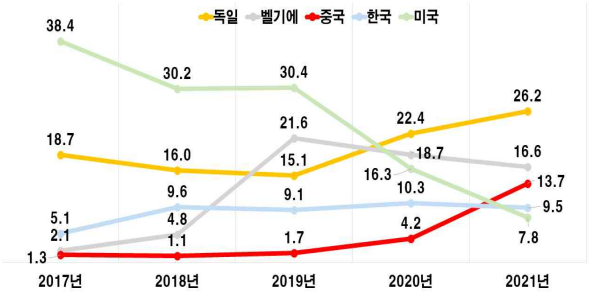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② : 전기차 전환, 중국 시장점유 강화 및 유럽 생산력 약화 우려

※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와는 다른 공급망 및 밸류체인 구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입지 강화 및 유럽 지역의 생산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 우려 등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산업구조 변화 동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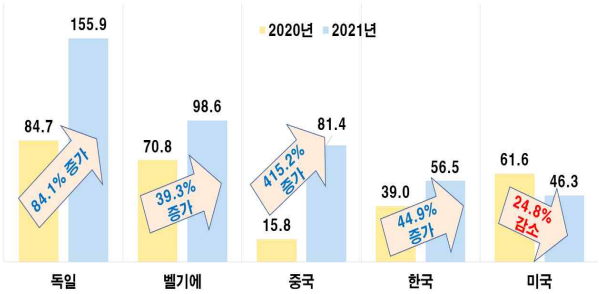
● 중국, 전환기(내연차→전기차)에 자동차 생산점유율 강화 추세

- '21년 기준 배터리전기차 세계 5대 수출국(독일, 벨기에, 중국, 한국, 미국) 중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이 9.5%p로 가장 높았음**
  - 독일 3.8%p 상승, 그 외 한국과 벨기에, 미국은 각각 0.8%p, 2.1%p, 8.5%p 감소

2021년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 Battery Electric Vehicle] 세계 Top 5 수출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2021년 배터리 전기자동차 Top 5 수출국의 최근 2년 수출실적 변화 (단위 : 억 달러, %)



(자료: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토대로 전경련 작성)

- **중국**은 '21년 기준 전기차 50만대 이상 수출, 그 중 **유럽 시장 점유율은 14.7%로 2위**
  - 중국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위인 독일(19.7%) 보다 낮으나, 3위인 프랑스(11.4%)를 앞선 수치로, '21년 유럽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중 중국산은 17.6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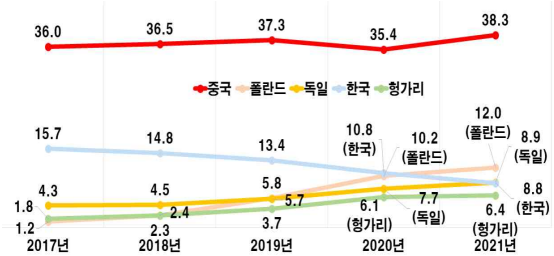
- **전기차 특성상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
  -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고, 핵심인 배터리 산업 규모가 크며 마진이 낮아 중국의 생산경쟁력이 높음 [Financial Times]

※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중국의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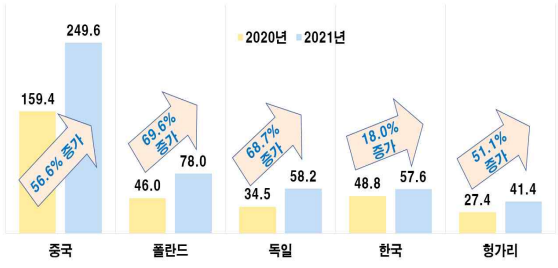
-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21년 기준 세계 5대 수출국(중국, 폴란드, 독일, 한국, 헝가리) 중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승이 가장 컸음 (2.9%p⇧)**

  * 폴란드가 1.8%p, 독일이 1.2%p, 헝가리가 0.3%p 각각 상승한 반면, 한국은 2.0%p 감소

2021년 리튬 이온 배터리 세계 Top 5 수출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2021년 리튬이온 배터리 Top 5 수출국의 최근 2년 수출실적 변화 (단위 : 억 달러, %)



(자료: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map 토대로 전경련 작성)

- CATL(宁德时代), BYD(比亚迪), CALB(中创新航) 등 중국 기업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출하량 기준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20년 38.4%에서 '21년 48.7%로 10.3%p 증가**

  * 다만 중국 기업은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아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산(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점유율은 '20년 52.4%에서 '21년 57.0%로 4.6%p 증가하며 세계 1위 유지

● **내연기관차 제조기지인 중유럽은 전기차 전환기에 생산력 약화 우려**

- 내연기관차 산업 비중이 높은 체코·슬로바키아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 및 소요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적시 대응 실패 시 전기차 전환에 따른 국내 경제 큰 타격** 예상
  - 체코는 자동차산업이 GDP의 약 10%로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 슬로바키아 역시 GDP의 1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
  - 두 국가에는 수많은 자동차 공급업체의 내연기관차 생산시설 포진,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 규모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등 자동차산업에 대한 의존도 높음

- 체코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생산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 체코 산업통상부, "전기차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님. 체코는 대체연료를 통한 내연차의 지속사용을 선호하고 제조업체의 배기가스 제로차량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체코 산업계는 정부가 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EU와 이념적 공감대 형성에만 집중한다고 비난

- **슬로바키아**는 9개 전기차 모델 생산 진행 혹은 고려 중으로 중부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 대응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체코·헝가리·폴란드는 생산 전기차 모델 수가 제한적**

- 특히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중동부유럽**의 경우, 정부의 ❶**소비자 대상 재정적 인센티브** 및 ❷**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전기차 친화적 환경 구축 ⇒ **생산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
  - 완성차 업체의 생산시설 구축은 수요에 따라 이뤄지나, 중동부 유럽의 전기차 수요는 타지역 대비 제한적. 전기차의 높은 가격은 초기 구매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특히 체코는 구매 지원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음
  - 체코는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3억 유로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나, 동 계획은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기에 '35년까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시 국가 주력 산업인 완성차 제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 한편 서유럽 국가인 **스페인**은 전기차 생태계 개발 및 소비자 판매 촉진 **140억 유로를 투자**, 이미 **10개 이상의 친환경차 모델을 개발**하는 등 EU 역내의 전기차 경쟁은 심화되는 추세

● **시사점**

- 전기자동차는 첨단 산업으로서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산업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새로운 공급망 및 밸류체인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내연기관차 산업 특성	전기자동차 산업 특성
• 크랭크축, 피스톤, 연료 펌프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조립품으로, 최저 인건비가 산업 경쟁력이 아니며, **기술 전문성과 광범위한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중요	• **배터리, 모터 등으로 구조가 간단**하며, **조립**에 내연자동차 제조 기술 일부가 필요하지만 **여타 전자제품 조립에 필요한 정도의 기술**임 •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생산 규모가 크고 마진이 적은 산업으로 **중국이 생산측면에서 유리한 구조** • 또한 **배터리 공장을 허브(핵심)**로 전기자동차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구조

- **중국**은 최후방산업인 **배터리 원자재**와 **방대한 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선진국과의 품질 격차를 줄여나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바, **주요국(권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일본**의 경우,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일본 전기차 충전기 표준을 담당하는 조직인 '차데모 협의회'를 중심으로 '인도 표준 초안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본 규격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나선 상황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기초 상식 : 런던금속거래소(LME) 알아보기 1

※ '비철금속'에 대한 뉴스에는 언제나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가 등장함. LME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철금속 거래소가 되었을까? LME에 대해 알아보자.

〈 LME 시리즈[1] 〉
16호 : LME 알아보기 1
17호 : LME 알아보기 2

● LME란?

- LME는 영국 런던에 1877년 설립된 140년 역사의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로, LME에서 발표되는 공시 가격은 세계 비철금속 계약 및 파생상품 가격의 기준이 됨
- 2012년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14억파운드(한화 약 2조 5천억원)에 LME를 인수함으로써 홍콩증권거래소는 원자재상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LME는 최대 금속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

● LME의 역사

- 영국의 비철금속 거래는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런던 왕립거래소(The Royal Exchange)를 중심으로 시작됨. 런던이 비철금속 거래의 중심지가 되며 19세기 초 수많은 원자재 무역상, 선박 임차인, 금융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많은 수의 개별 그룹들이 런던 커피하우스 근처에 거래 공간을 만들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
- 금속을 파는 상인이 바닥의 톱밥에 원(ring)을 그리고 '체인지(change)'를 외치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 주변에 모여 입찰가를 제시하던 것에서 유래, LME에서는 현재까지도 링 거래 방식이 유지

〈 과거와 현재의 LME 거래 모습 〉

과거(1966년)

자료 : Financial Times

현재(2022년)

자료 : Bloomberg

● LME 거래상품과 거래방식

- LME에서는 알루미늄(합금2종, 프리미엄 포함), 구리, 아연, 니켈, 납, 주석, 철강(스크랩 및 철근), 몰리브덴, 코발트, 금, 은 등 14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의 거래가 가능
- 거래 방식은 '링 거래(Ring, 플로워에서 공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는 거래)', '전산 거래(LME Select, LME가 운영하는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전화 거래(Inter-Office Telephone Market)'등으로 나뉘어짐

☞ 다음호(17호)에서 이어집니다

1) 참고자료 : 1. 곽재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혜다출판사, 2020
2. LME홈페이지(lme.com)
3. 유태원. 원자재전쟁. 한빛비즈, 2017
4. 조달청 블로그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① : 주요국의 전기차 산업 지원정책과 공급망 이슈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전기차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 전기차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IEA의 글로벌 전기차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국의 지원정책과,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망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 전기차 동향 시리즈 〉
15호 : 세계 전기차 시장 동향
16호: 주요국 정책과 공급망

●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부진 속에서도, 전기차 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배 이상('20년 299만대→'21년 660만대) 크게 성장**

- 주요국들은 자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구매 보조금 지급·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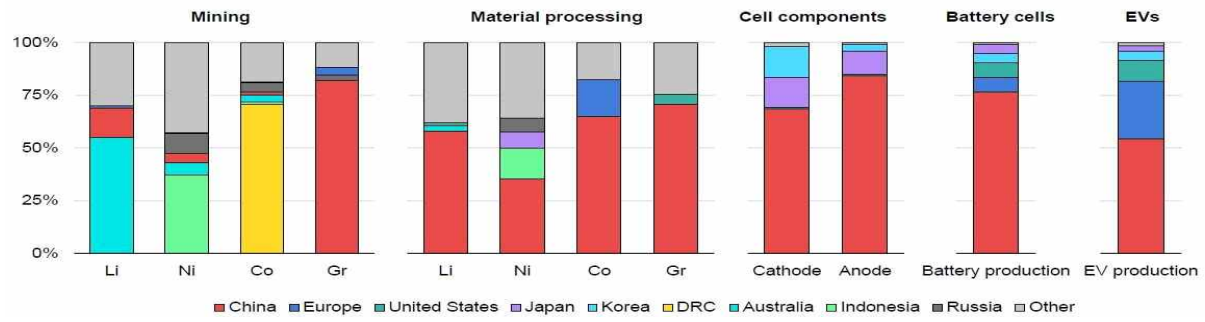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계획〉

국가	전기차 전환 목표
미국	-'30년까지 경량급 승용차(passenger LDV)의 전기차 판매비율 50% 달성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75억달러 및 배터리공급망 구축을 위한 30억 달러의 자금 지원
EU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패키지 'Fit for 55'를 통해 '35년부터 모든 등록차량은 반드시 ZEV(Zero emission vehicle)이어야 한다고 발표(최근(6.8일) 유럽의회 통과)
일본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보조금 대폭 증액(80만엔까지), '30년까지 공공충전소 15만개로 확대. '35년까지 신차 판매의 100%를 친환경자동차(일본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HEV(Hybrid Electric Vehicle)를 친환경차에 포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중국	-'25년까지 신에너지차(NEV) 2천만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리튬이온배터리 산업 관리 강화
한국	-친환경차 누적 보급대수 2025년 283만대, '30년 785만대로 확대(전체 차량의 30%에 해당)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확대(2025년까지 50만기)

●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이 주요 이슈로 부상**

- 높은 배터리 수요 및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며 최근 배터리 원자재 금속 가격이 크게 인상
  -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차질,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Class1 니켈 공급차질 우려, '21년 이전의 원자재 투자 축소 등으로 공급불안이 발생하여 가격 상승 압력 심화
- 중국은 배터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R&D 지원 확대, 배터리 생산시설 관련 재정 지원 등의 금융·정책적 노력을 지속

〈 중국(붉은색)의 배터리 공급망 각 단계별 점유율 〉



자료 : IEA

● **IEA는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의 5가지를 권장**

- ① 효율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조정**(예 : 내연기관차에 부과한 세금을 전기차 전환 지원 정책자금으로 사용), ②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의무 판매제 등), ③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운송 차량 전동화(Electrification)를 위해 **이륜차 및 도시 버스를 전기차로 우선 전환**, ④ 지속적인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⑤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② : 러시아 기업들은 어떻게 제재에 대응하고 있을까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은 지난 5.27일 당지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 수출입의 날 포럼 봄 세션'에 참석하여 러시아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짐.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방의 對러 제재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계기 : 제6회 국제 수출입의 날 포럼 개최

〈제6회 국제 수출입의 날 포럼 봄 세션 〉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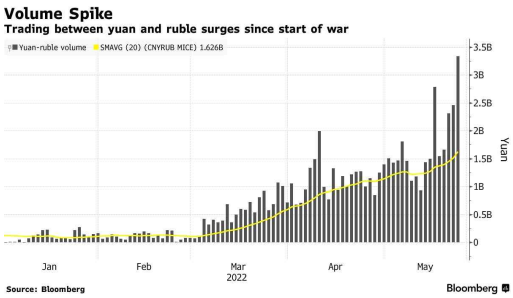
- 러시아 기업 간 공산품·농산물 수출, 물류, 교역 서비스 정보 교류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봄·가을에 개최
  - '18.5월 발표된 러시아 연방 발전 대통령령에 부응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가 단체의 제안으로 개최되기 시작
- 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해 왔으나 이번 6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서방 제재 하 러시아 기업들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큰 관심의 반증
- 서방의 제재 하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① 금융, ② 파트너 확보, ③ 물류에 대한 애로 및 대응방안을 공유

● 제재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주요 애로 및 대응 방안

(1) 거래 은행 및 결제 통화 변경

-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퇴출 및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금 결제 불가 → **대체 은행(지방, 소형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위안화 등 대체 통화**, **非러시아 소재 사무소 활용** 등을 통해 수출입 대금 결제 가능
  - (건설자재 수출기업 T사) 태국·베트남·방글라데시 등 지역 파트너 통한 계약의 경우 3주 이내에 위안화로 송금받음. 통화 변경에 따른 2~3% 마진율 손실이 있으나 크지 않으며, 러시아 송금이 어려울 경우 베이징 사무소로 송금이 가능

〈러-우 전쟁 직후 위안-루블 거래량 급증 그래프 〉



5.31일 기준 모스크바 현물시장에서 루블-위안 월간 거래량은 전쟁 발발 이후 1,067% 급증한 40억 달러에 육박
(출처: Bloomberg)

- (농업은행 담당자) 달러 결제 불가능할 경우 대비, 위안화 등으로 결제 통화 변경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

(2) 아시아 중심의 협력 파트너 발굴

- 다수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 중단 → **적합한 국가의 신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 제시

〈 신규 협력 파트너 대상 국가 〉

대상국가	내용
중국	• 러시아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계·설비의 경우 기존 유럽 공급처에서 중국 대체 공급처로 이동 중 • (러시아 선사 F사) 일본 차량 수입 주춤해진 사이 체리자동차 등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 (포럼 참석 기업)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높은 발전 잠재성을 확인하여 우즈베키스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 A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통관, 인증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언급
UAE·터키	• **UAE의 정치적 안정성, 터키의 창고 보관 능력**이 이들 국가의 장점 • (현지 언론 RBK) **'22.4월 한 달 새 러시아는 터키에 136개의 기업을 설립**하며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 이는 사태 이후 터키와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확대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음

(3) 대체 운송 루트 발굴

- 서방 선사들의 운항 중단 및 일부 구간 적체로 물류 운송 차질 → **내륙운송, 극동항구 등의 대체 루트 발굴**과 **새로운 물류 허브 조성 움직임**

〈러 기업 대체 루트 발굴 〉

기업	내용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 A사	• 현 상황에선 ① **바이칼스크를 통과하는 경로(만주횡단철도 추정)**, ② **몽골을 통과하는 경로(몽골횡단철도 추정)**, ③ **우수리스크를 통과하는 도로 운송(트럭킹) 경로** 등 항상 3개의 물류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제언
건설자재 수출기업 T	•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통한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수출 경로의 이용이 힘들게 되어 **철도 운송 및 블라디보스톡항을 활용하는 대체 경로**를 발굴하여 물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러시아 극동 냉장냉동 컨테이너 운송업체 D사	• 3개의 대체 물류 루트를 소개 - 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중국 훈춘 철도 노선 : 최근 유럽으로 수출이 감소한 명태의 중국으로의 대체수출이 증가, 트럭 운송에 비해 국경 통과가 신속한 철도 배송 루트를 구축해 운송 시간을 최대 7일에서 하루로 단축 - ② 터키 이스탄불-러 노보로시스크 해상 운송 노선 : 여름 시즌 터키 신선 과일의 러시아로의 운송이 하루 정도 만에 가능해질 예정 - ③ 러 극동을 경유하는 모스크바-베트남 노선 : 러 서남부를 통한 벨라루스산 육류의 베트남 수출이 어렵게 되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내륙 운송, 블라디보스톡항에서 베트남까지 해상 운송을 연계한 노선을 구축했으며 총 소요기간은 20~25일이 소요

- 러 연방 관세청 제1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서방향 물류 흐름 감소는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조치**와 특정상품 운송 제외 **러시아 등록 차량의 EU 영토 진입 중단**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에서 **러시아 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 등 인위적 통관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로 인해 **러 동부와 남부 국경, 특히 중국,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지역을 통한 국제 운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문소, 진입로 등의 인프라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Ruslan Davydov (러시아 연방 관세청 제1차장)〉

(출처: Miacenter)

● 관찰 및 평가

- 러시아 기업들은 러-우 사태에 따른 각종 제재로 금융, 물류, 파트너 발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4년 크림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했던 것과 유사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차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기업의 88%가 제재의 영향을 받았으며, **77%는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거나 적응할 계획**, 12%는 제재에 대처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 (러시아 기업가 권리보호연구소, 6,003개사 대상 설문)

* 러 기업 직면 주요 애로는 수요 감소(62%), 자금 부족(41%), 물류난(36%), 수입 어려움(27%) 등

-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 절반 이상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만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바**,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향후 대응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됨
- 이번 포럼에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음. **최근 러시아 기업들의 현황과 대응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업의 對러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현지 파트너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극동지역은 전통적으로 한·중·일 3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다는 언급은 있었으나 이후 중국, 베트남 등 대체 시장 발굴 논의가 주를 이룸

GVC 전문가 : 강바다·김경유(산업연구원)
- '중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시사점'

※ 최근 선진국으로의 중국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 중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동향

- '04~'06 : 자동차 수출 2만대 → 34만대
  * '10년대 이후 연간 100만대 수출 수준에서 정체
- '11~'19 : 신흥국 및 저개발국(브라질, 러시아, 이란 등) 중심으로 저가 경소형 차량을 주로 수출
  * 미국 수출이 증가했으나, 골프카트 등 특수차량이거나 GM이 중국에서 경차를 생산하여 수출한 것에 기인
- 초기 상용차('15(65%) → '21(27%)) 중심에서 최근 전동차('15(0) → '21(31%)) 비중이 크게 증가

〈 중국 자동차 수출 상위 국가 변화 추이 〉

	1위	2위	3위	4위	5위
2011	브라질	러시아	칠레	이란	이라크
2012	러시아	이라크	이란	알제리	칠레
2013	러시아	칠레	이란	캐나다	알제리
2014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국
2015	이란	베네수엘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2016	미국	이란	러시아	이집트	칠레
2017	이란	미국	멕시코	벨기에	칠레
2018	미국	이란	멕시코	칠레	이집트
2019	미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칠레

자료: UN Comtrade.
주: HS 8703을 기준 중국 자동차 수출액을 계산함.

● 최근 중국자동차 수출의 특징과 배경

- (생산) 연간 2,500만대 이상의 생산 규모(세계 1위)
- (수출) 214만대('21) ('20년 106만대에서 2배 급증)
- (지역) 수출 지역의 변화 (러시아·중동·중남미 + 유럽)
  * 對유럽 수출 급증 : 17만대('20년) → 52만대('21년)
- (품목) 신에너지차('21년 58.8만대) 약진 (원인 : ❶~❸)

❶ 중국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정부·금융기관의 자금지원 → 적극적인 M&A, 우수인력 영입

❷ 테슬라는 중국공장을 통해 유럽 및 아시아 수출 본격화
* '21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 중 테슬라의 7만대가 포함

❸ 중국 로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 확대 적극 시도
* 로컬기업(BYD, 창청, 체리 등), 스타트업(NIO, 리샹, 샤오펑 등)

〈 중국의 신에너지차 주요 수출대상국 변화 〉

단위: 대,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1	방글라데시	101,326	143,680	96,903	82,625	-14.7
2	영국	92	3,717	13,607	56,842	317.7
3	인디아	27,699	63,299	43,862	49,046	11.8
4	태국	284	4,182	3,276	40,657	1141.1
5	독일	708	5,299	9,452	29,007	206.9
6	프랑스	132	1,556	2,012	21,122	949.8

자료: 중국자동차유통협회(CADA).
주: 순위는 2021년 기준.

● 향후 전망

- 중국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은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계하여 더욱 빠르게 확대
  • 기존 자동차산업의 경우 기술이 복잡하고 변화 주기가 길어 신규 진입이 어렵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장시간 소요 → 최근 전동화, 자율주행화, 모빌리티서비스화 등으로 인해 신규 진입 기업에 많은 기회 부여
-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IT업체들로부터 자동차 위탁생산 수요 증가 가능성
  • 대규모 생산설비와 경험이 요구되고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경쟁 요소 →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기회

☞ **한-중 양국**은 미래차 시장은 물론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우리 자동차산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❶ **국내 스타트업**들이 전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등 미래차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규제 회피,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관련 업체와 협업** 추진

❷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모듈단위 부품**은 자율주행시스템 수요 확산 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등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펀드로 100만~1,000만원 지원**(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VAT포함)
-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폭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셰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해상운송] 중소기업 철강 벌크화물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포스코)**

- (사업개요) 포스코의 수출 화물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화물을 합적하여 해상 운송 지원
-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반제품류*) 및 포워더

*포스코의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통해 합적 운송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항차 정보 〉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 (상세내용) 포스코 공동 "회원사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www.steel-n.com) →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 승인 이후 화물 합적 신청
  메일 신청 : 링크(클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hjlee0913@poscoflow.com으로 제출
- (문의처) **사업·참가신청 방법 안내 문의**:
  한국무역협회「물류서비스실」☎ 02-6000-7617/5359 / hjo117@kita.net
  화물 합적 가능여부 확인·플랫폼 관련 문의
  포스코 해외철강물류그룹 ☎ 02-3457-3199 / hjlee0913@poscoflow.com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는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도착지 확대 : **유럽 전역 및 러시아**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화물예약데스크」☎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KOTRA),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소식

2022 중국 충칭 수소 산업 진출 웨비나 및 상담회

- 수소 산업 관련(모빌리티, 운송, 저장 등) 우리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
  - (일시) 웨비나: 6월 22일(수) 15:30~17:20 / 1:1 상담회: 웨비나 후 별도 시간 진행
  - (신청기한) 6월 20일(월)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2022 중국 충칭 수소산업 진출 웨비나 안내(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1)사업 신청서 작성 및 2)기업 IR자료(중문/영문 버전) 첨부
    - 용량초과로 인해 첨부 불가시 아래 문의처 메일로 송부 요망
  - (프로그램) [웨비나] 중국 수소 산업 발전 계획, 충칭 주요 완성차 기업 수소차 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충칭 수소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발전 계획, 한국 주요 기업 현황 등의 발표 진행
    [1:1 상담회] 창안자동차, 상하이자동차홍엔, 나이더공업 등 수소 자동차 기업과의 온라인 상담
  - (상세내용) KOTRA 2022 중국 충칭 수소산업 진출 웨비나 안내(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그린산업팀 강형묵 대리 ☎ 02-3460-7485 / moouuk@kotra.or.kr

2022년 글로벌 신통상 포럼

-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및 新통상 환경을 소개
  - (일시/장소) 6월 24일(금) 8:30~14:20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JW메리어트호텔 3층, 5층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신청 인원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50개사 선정 예정, 그 외 기업은 온라인 참석 가능)
  - (신청기한) 6월 19일(일) 限
  - (참가신청) KOTRA 2022년 글로벌 신통상포럼(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프로그램) [사전행사]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방향 소개
    [본행사] 글로벌 통상 환경에 따른 국가 경제 협력 방향 전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신통상질서의 변화 소개 세션 및 패널 토론 등
    - 오프라인 참석 기업에게 오찬 제공 (임원급 이상 참석 50개사 대상)
  - (상세내용) KOTRA 2022년 글로벌 신통상포럼(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통상협력팀 이동준 사원 ☎ 02-3460-3317 / djlee466@kotra.or.kr

2022 Select USA 연계 한-미 투자협력 포럼

- 한-미 경제 및 반도체 협력 의의와 양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주제로 개최하는 투자 협력 네트워킹 포럼
  - (일시/장소) 6월 28일(화) 17:30~20:00 / 매릴랜드 게이로드 컨밴션센터 매릴랜드 볼룸 B
  - (신청기한) 6월 28일(화) 限
  - (참가신청) KOTRA Select USA 연계 한-미 투자협력 포럼(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단, 한-미 투자 협력 포럼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Select USA Summit 행사 참가 신청이 반드시 필요 : www.selectusasummit.us 링크 접속 → Apply now 클릭 (※참가비 1,050 USD)
  - (상세내용) KOTRA Select USA 연계 한-미 투자협력 포럼(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투자MnA팀 고운정 대리 ☎ 02-3460-3246 / ko.uj@kotra.or.kr

더 찾아보기 : 미국 분유대란으로 본 공급망 정책 리스크 (그래픽)

미국 분유 파동이란?

올해 2월 미국 분유 시장의 거대 기업
애보트(Abbott)의 조제분유를 먹은 영유아 2명이
크로노박터(Cronobacter)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제품 리콜사태가 벌어지고,
이 회사의 3개 브랜드 제품에 대한 회수와 함께
생산 공장은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분유시장은 독과점 구조로,
애보트가 시장의 48%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기에 이 빈자리를
메드 존슨(Mead Johnson), 페리고(Perrigo), 네슬레(Nestle)로
대체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월 18일 미국 전역의 **유아용 조제분유 품절률**은 **43%를 기록**,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재기가 발생한 시기의 **품절률도 20%대**였던 것을 언급하며 이 지표를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분유 시장, 독과점 시장이 된 원인

무역 정책 [미 농림부]

미국은 관세할당제도로 분유 수입을 제한합니다.
4,105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기타 유제품' 수입 시
17.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과 분유를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인데, 18억 달러 규모의
미국 분유 시장에서 '21년 멕시코산 점유율은
5,000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까다로운 FDA 평가 기준

FDA는 조제분유의 단백질, 지방, 필수 지방산, 15개 비타민,
12개 미네랄의 포함 여부 등을 폭 넓게 검사하기에,
더욱 안전한 미국산 분유 개발에는 공헌했지만,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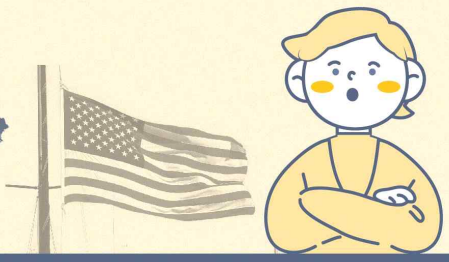
Defense Production Act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물품을
생산기업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분유 원재료를
우선 생산하고 이를 미국 기업에
우선 공급해 미국 내 분유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규제 완화 법안 제안

일부 상·하원의원은 분유 관세를
줄이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비상시 미국 대통령이 EU, 캐나다,
영국 및 일본산 분유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입니다.



그 외 국내외 유통량 증대 위한 대응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농무부에 군용기로 정기 항공화물 수송로를
우회하는 해외 조달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유통 확대를 위해서는 분유 원료와
포장품 운반 운전자에 한하여,
하루에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14시간 운행이 가능한 현행법을 면제,
무제한 운행을 허용하는
국가 비상사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급망 정책에 대한 고민

또한 다행스럽게 FDA와 애보트는 미시간 공장 재가동에 합의, 약 6~8주 후에는 조제분유 대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되는 공급망 위기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요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 증대를 추구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자국산 우대 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유 대란으로 자국 공급망 의존만으로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실감한 만큼,
각 국은 품질 부분 이외 규제 완화 등의
공급망 정책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제작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가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가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6. 15. 수)

[환율]

	'20.12.31	'21.12.31	'22.5.31	'22.6.10	'22.6.13	'22.6.14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37.20	1,268.90	1,284.00	1,286.40	+0.19%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37.40	1,268.20	1,283.70	1,285.50	+0.14%	+5.08%
₩/CNY	166.04	186.51	185.67	187.52	190.61	192.75	+1.12%	+2.32%
₩/Y100	1,051.19	1,032.48	967.77	947.51	953.51	956.57	+0.32%	-5.23%
Y/U$	103.34	115.14	127.84	133.92	134.66	134.48	-0.13%	+11.02%
U$/EUR	1.2279	1.1318	1.0741	1.0622	1.0485	1.0437	-0.46%	-5.34%
CNY/U$	6.5305	6.3681	6.6520	6.6841	6.7345	6.7215	-0.19%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6.13 (전일)	'22.6.14	전일(6.13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15.63	118.67	▲3.0 +2.6%	▲68.6 +137.1%	▲41.6 +53.%9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36.60	134.20	▼2.4 -1.8%	▲46.9 +53.8%	▲13.5 11.1%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290.00	9,263.00	▼27.0 -0.3%	▲1,507.5 +19.4%	▼429.0 -4.4%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589.50	2,588.00	▼1.5 -0.1%	▲636.5 +32.6%	▼218.0 -7.8%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6,390.00	25,500.00	▼890.0 -3.4%	▲9,593.0 +60.3%	▲4,575.0 +21.9%

[반도체]

	'20	'21	'22.3	'22.4	'22.5	6.9	6.10	6.13	6월(~1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5	3.47	3.39	3.44	3.43	3.43	3.40
(YoY)	-21.9%	+8.0%	-11.0%	-25.1%	-23.9%	-23.2%	-23.5%	-23.7%	-24.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	8.2	8.28	8.25	8.25	8.24	8.26
(YoY)	+7.0%	+32.8%	+33.9%	+34.5%	+30.2%	+28.2%	+28.0%	+27.9%	+26.9%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5.20	'22.5.27	'22.6.2	'22.6.10	전주(6.2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4162.69	4175.35	4208.01	4233.31	+0.6%	-16.1%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5.31	'22.6.8	'22.6.9	'22.6.10	'22.6.13	전일(6.10比)	'21년말比
BDI	2217	2566	2410	2342	2320	2260	-2.6%	+1.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